



07-14 (통권 141호)

2007.4.6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국가 채무 GDP의 33.4%
- 美, 對中 무역 강경 조치

경영 노트

- ‘재택근무’ 확대하는 일본 기업

사회 트렌드

- 교육열은 최고, 삶의 질은 열악
- ‘비혼(非婚)’ 시대

저널 브리프

- 한반도의 이상 기후

洗心錄

- 혁신가로서의 ‘페르소나’

□ 국가 채무, GDP의 33.4%

- 재정경제부의 2006 회계년도 정부 결산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체 국가 채무는 2006년말 현재 282.8조 원(GDP 대비 33.4%)으로 전년말 대비 34.8조 원 증가하였음
 - 국가 채무 증가의 주요 요인은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발행으로 11.5조 원, 공적자금 국채 전환 및 이자 지급으로 10.8조원, 일반회계 적자 보전으로 8.0조 원 등이 지출되었기 때문임
 - 한편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76.9%, 유럽연합(EU)의 평균 60%보다 낮아 건전성 수준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하지만 국가 채무 가운데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를 제외한 국민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적자성 채무가 1인당 248만 원에 달하여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美, 對中 무역 강경 조치

- 미국 상무부는 정부 보조금을 받는 중국산 제지(製紙)제품 등에 대하여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
 - 이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급증하고 있는 대중 무역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됨
 - 2006년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가 전년 대비 15.3%(309억 달러) 증가하여 사상 최대치인 2,325억 달러로 미국 무역적자의 1/3을 기록하였음
 - 중국 정부는 이러한 미국 정부의 규제 조치를 완화하기 위하여 5월에 열리는 미국과의 '경제전략 대화'에서 125억 달러어치의 미국 상품 구매를 제의할 예정임
- 향후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동시에 철강과 섬유 등으로 규제를 확대할 것으로 보여 중미간 무역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재택근무’ 확대하는 일본 기업

- 일본의 마쓰시다 전기가 '07년 4월부터 본사 및 자회사의 종업원 총 7만 6,000명 중 사무직 사원 3만 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제를 도입하기로 함
 - 사원이 재택근무를 신청할 경우 평소 근무 태도에 문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주당 1~2일의 재택근무를 허용하기로 함
 - 마쓰시다는 작년 4월 사원 1,000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시범 실시한 결과, 업무 효율이나 팀워크에 지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림
- 일본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노동가능인구가 줄면서 기업들이 인력 확보 차원에서 재택근무제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추세임
 - 일본에서는 IT업계를 중심으로 수년 전부터 시범적으로 재택근무제가 도입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타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 특히 일본 산업계에서 여성 인력의 활용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육아나 간병 등으로 정상근무가 힘든 사원들에 대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인재 확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재택근무제를 도입한 일본 기업 >

기업	업종	도입 시기	내용
일본 IBM	IT	2001년	전 사원 18,000명
도요타	제조	2002년 12월	자녀가 8세 미만인 직원
일본 오라클	IT	2005년 3월	재직 사원 1,448명 전원
NEC	IT	2006년 7월	시스템 구축 등 2,000여명, 현재 200명 시범도입 중
닛산	제조	2006년 7월	자녀가 초등 3학년 이하인 직원
NTT 데이터	IT	2007년 3월	육아, 간병이 필요한 직원, 100명 정도 대상 월 5회
마쓰시다 전기	제조	2007년 4월	시스템 개발, 영업, 기획, 인사 등 3만 명
일본 HP	IT	2007년 6월	전 사원 5,600 명 (예정)

자료 : 일본경제신문(2006.8.14, 8.22) 등

- 정보·통신기술의 지속적인 발달을 바탕으로, 인적자원의 새로운 활용 형태로서의 재택근무가 향후 전 산업에 걸쳐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로선 재택근무 시행에 대한 기업의 의지와 정부의 지원제도 정립도 미흡하여 단기간 내에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하지만 기업 현실과 재택근무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우수 인재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교육열은 최고, 삶의 질은 열악

- **우리 나라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음**
 - 2005년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출액은 GDP 대비 7.5%로 OECD 회원국 중 2위였으며, 특히 민간교육기관에 대한 지출 비중은 2.9%로 OECD 평균인 1.3%의 배가 넘어 1위로 나타남
 - 덕분에 학생들의 읽기(2위), 과학(3위), 수학(2위) 실력은 모두 최상위 수준을 기록함
- **반면 평균 수명, 보건 지출, 문화여가비 등 삶의 질적인 측면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떨어짐**
 - 삶의 질 측면에서 비만율은 29위로 양호했지만, 평균 수명(24위), 보건 지출(26위), 문화여가비 지출(18위) 등은 OECD 평균을 밀돌았음
 - 또한 세계 10개 주요 도시의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의 행복도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경제, 문화·교육, 복지, 안전, 시행정 종합)
 - 교육에 대한 투자와 함께 아이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비혼(非婚)’ 시대

- **결혼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 내재된, ‘비혼’을 지향하는 젊은층이 나타남**
 - ‘비혼(非婚)’은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임을 나타내는 말로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가 아닌, 그저 결혼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함
 - 20~30대 싱글의 1/4 가량이 ‘결혼할 마음이 없다’(23%)는 의견으로 비혼자들의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싱글 세대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통적인 가정과 똑같은 세제나 사회보장제도 상의 혜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싱글들은 대출, 주택 청약 등 경제적인 면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산, 입양, 양육 전반에 걸쳐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결혼이 필수인 시대는 더 이상 아니며, 미혼자나 비혼자의 인격과 삶에 대한 편견도 사라져야 할 때가 도래함

□ 한반도의 이상 기후*

- 최근 지구 온난화 문제가 전 세계적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특히 한반도의 이상 기후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지난 100년 동안 세계 평균 기온이 0.74℃ 오른 것과 비교하여, 한반도의 평균 기온은 1.5℃나 올라 기온 상승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또한 여름철 열대야 일수는 1920년대 2.3일에서 2000년 이후 9.4일로 늘어났으며, 최근 10년간의 연평균 강수량도 예년에 비해 10% 증가함
- 산업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세계적 이상 기후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세계 각국은 교토의정서 채택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결의함
 - 1992년 리우정상회의에서 맺어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1997년 교토의정서를 채택하고 세계 각국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촉구함
 -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1차 의무감축 대상국인 38개 선진국이 2008~2012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5.2% 줄이도록 하고 있음
 - 2013년 이후에는 개발도상국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게 되며, 2차 의무감축 대상국들은 2013~2017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게 됨
- 한편 정부도 4차에 걸쳐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 정부는 1999년 범정부 대책기구를 구성하고, 기후변화협약 제1차 종합대책(1999~2001년), 2001년에는 제2차(2002~2004년), 2004년에 제3차 종합대책(2005~2007년)을 수립하여 대응함
 - 정부는 현재 제4차 종합대책(2008~2012년)을 입안 중이며, 일부 가능한 부문에서는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도 함께 정할 방침임
- 2002년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우리 나라는 2013년부터 2차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우리나라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세계 10위국으로, 1990년부터 2003년까지 연평균 5%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시민단체들도 우리나라가 2차 의무 감축 대상국이 되는 것이 확실한 만큼, 하루빨리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함

* 이 글은 『시사저널』(2007.4.3)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혁신가로서의 ‘페르소나’(persona)

사람은 누구나 여러 ‘페르소나’(persona)를 쓰고 살아가고 있다. 페르소나는 라틴어로 연극 배우가 쓰는 가면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겉으로 드러난 외적 성격으로서 인격의 “가면”이라고 한다. 심리학자 융(Carl Gustav Jung)에 의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여러 상황에 맞게 다양한 페르소나를 쓰고 산다고 한다. 회사에는 깐깐한 상사, 친구들과는 한없이 편한 친구, 집에서는 다정다감한 아빠로서의 페르소나가 된다.

조직은 혁신에 필요한 다양한 페르소나들이 있어야 성공한다. 회의에서 누구의 아이디어에 호응이 높아지고 있는 데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아이디어를 격려해 주고, 실험해 보자는, 또는 밀천을 대주겠다는 등의 혁신에 필요한 여러 페르소나들이 존재한다면 ‘악마’는 조직 내에서 사라질 것이다. 『이노베이터의 10가지 얼굴』(톰 켈리, 2007년)에는 이노베이션 조직이 가져야 할 10가지 유형의 페르소나를 제시되어 있다.

- 문화인류학자 : 조직에 새로운 학습과 통찰을 가져오는 자
- 실험가 : 끊임없이 프로토타이핑하고 모험적인 실험을 하는 자
- 타화수분자 (他花受粉者) : 영감과 통찰을 기업의 필요와 접목시키는 자
- 허들러 (Hurdler) : 장애물을 극복, 제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자
- 협력자 : 그룹 간에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자
- 디렉터 : 사람들을 모으고 창의적인 재능에 불꽃을 일으키는 자
- 경험건축가 : 고객의 발현 혹은 잠재 욕구를 성공적으로 충족시키는 자
- 무대연출가 : 최선을 다해 이노베이션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주는 자
- 케어기버 (Caregiver) : 고객의 필요를 즉각 충족시키는 자
- 스토리텔러 : 기업문화를 강화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개발하는 자

조직 구성원들은 페르소나의 원리에 기초해 보면, “실제로 최고인 것보다 사람들에게 최고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무리 우수한 능력을 가졌다 해도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거나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의문이 많으면 많이 나아가고 의문이 적으면 적게 나아간다. 그리고 아무 의문도 없으면 전혀 나아가지 못한다.”

주희(朱熹): 송나라 유학자 (1130~1200)